"한국 바이애슬론 미래 책임진다"

이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 전국대회 1위

물 맑고 맑은 공기로 유명한 포천의 백운계곡 인근에 위치한 이동중학교(교장 이철건)는 2007년7월16일 바이애슬론부 창단이래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1명 등 6명의 선수와 이창학 감독, 김태영 코치의 지도 아래 바이애슬론부 활동이 시작됐다.

창단 6개월만인 2008년2월20일~22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3학년 장지연 선수가 스프린트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단체전 18km계주에서 김유리, 정유림 선수와 함께 2위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또한 6월3일과 4일 이틀간 전라남도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5회 회장배 전국하계 바이애슬론대회에서는 3학년 장지연 선수가 스프린트 1위와 3학년 장지연, 김유리, 2학년 정유림 학생이 계주에서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장지연 선수는 동계대회와 하계대회를 석권함으로서 여중부의 최고선수로 급부상하여 바이애슬론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게 되어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기도 했다.

동계스포츠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생소하게 다가옴을 감안할 때, 이동중학교 바이애슬론부가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몫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6월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25회 회장배 전국하계 바이애슬론대회 입상기념

방과후학교로 즐겁고 신나는 학교

청성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작품전시 및 발표회

6월7일 토요일 포천시에 있는 6학급 전교생 157명의 작은 청성초등학교는 1학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청성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과 차곡차곡 쌓아진 실력들이 드러나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많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청성초등학교는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발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수업 질 관리 및 강사 관리를 통하여 즐겁고 신나는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칼라믹스, 비즈공예, 댄스스포츠, 컴퓨터, 영어로 배우는 기타교실, 영어교실, 사물놀이, 한국무용, 축구부, 씨름부, 리코더부, 논술부, 수리탐구부 등 1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4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분기당 평균 100여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 취미에 따라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

6월7일 토요일 포천시에 있는 6학급 전교생 157명의 작은 청성초등학교는 1학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신관 로비에서 칼라믹스, 비즈공예부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고, 강당에서는 사물놀이와 영어로 배우는 기타교실, 댄스스포츠부, 리코더부의 공연이 있었다.

발표회와 전시회를 참관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녀들의 진지한 태도와 발전된 모습에 모두 놀라워하며 학교의 관심과 지도에 감사하기도 했다.

임승출 교장은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을 보장하고 저렴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의 지역 사회화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는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전인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청성초등학교 담당교사는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설 희망 부서를 조사하여 다양한 부서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표현 및 발표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주고 성취의욕을 높이고자 이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무봉2리공부방 한자 공부 큰 성과

2개월만에 전국서예대전 특선 1명, 입선 4명 배출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마을회관에 마련된 공부방에서 그동안 한자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전국서예대전에서 큰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무봉2리 부녀회(회장 이은숙)가 관리하고 있는 무봉2리 공부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일 오후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최장식(72)교사의 지도아래 20여명의 학생들이 사자성어를 공부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기도구는 이성호 소흘노인대학장의 주선으로 포천시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계획은 학생들이 한자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한자급수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숙 무봉2리 부녀회장은 "무봉2리 공부방은 포천시에서 지원해 마련한 것으로 무봉2리 학생들은 물론 1,3리 학생들과 고모리 등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며 "한자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물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부에방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공부하고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선 김지은(축석초 3년) ▶입선 김대원(축석초 3년) ▶입선 한승희(축석초 3년) ▶입선 신호근(축석초 6년) ▶입선 강경욱(축석초 6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소흘읍 무봉2리 마을회관에 마련된 공부방에서 그동안 한자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전국서예대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자유기고

할머니 생신

"은혜야! 일어나라 서둘러야 한다."엄마의 성화에 투덜투덜 짜증내며 일어났다.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오늘이 87번째 맞이하는 할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졸리운 눈을 비벼서 일어나야만 했다.

"은혜야, 할미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기에.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다정하신 생전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돌아가신지가 벌써 2주년을 맞이한다.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시작되어 40일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가셔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셨다.

6월 14일 토요일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집을 향했다. 화창한 날씨가 더없이 감사했다. mp3 이어폰 한쪽 줄이 끊어져서 이어폰 먼저 사고 가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이어폰과 할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엄마가 케이크를 사신다고 하시기에 치즈케이크를 부탁드렸지만, 손에 들고 오신 것은 모카케이크였다. 납골당 가는 동안 치즈가 녹아 내린다고 하시며 내게 미안해 하셨다.

녹색 산림을 헤치며 한적하고 시원한 도로를 달렸다. 녹슬은 청평철교와 청평댐이 한눈에 들어오고 강에서는 낚시하는 태공들이 꽤나 많이 눈에 띄었다.

아빠께서는 철교와 댐이 일본이 우리 백성을 강제 동원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일제시대의 만행은 치가 떨려 용서가 안되지만 그들의 기술은 대단하다고 하셨다.

댐은 청평 자연 휴양림 입구에서 문중 납골당으로 갈라졌다. 입구에는 예전에 없었던 철대문이 생기고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진 것으로 보아 산림훼손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문중 관리 아저씨께 전화하시는 동안 심심한걸 견디지 못한 나는 순식간에 담을 넘어버리고 우리가족은 박장대소를 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구슬땀을 흘리며 올랐다. 간간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도 했다. 아빠가 납골당의 문을 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내려놓으시는 동안 나는 한바퀴 둘러보았다.

봄에 왔을 때보다 사망하신 분들의 사진이 더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크를 자르고 편지를 드렸다.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문으로 끝냈다.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콧등이 시큰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4살 때 큰집에서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집어먹다가 흘렸는데, 사촌오빠와 언니가 할머니께 일렀더니 "괜찮다~ 그냥 놔둬라~" 하시며 내 편을 들어 주셨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집안 막내로 태어난 나를 각별하게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지만 그리움뿐이다.

살아 계실 때에 잘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선물이라 생각해 본다. 할머니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약속을 했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며 엄마가 쓰신 짤막한 편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조 은 혜
학생명예기자단 부단장
운담초 6년

【어머니! 오늘 87번째 생신을 아시는지요. 빈자리를 생각하면 가슴 한 켠이 찡하고 멍해지는데 눈물이 핑 도네요. "에미야.....미역국 좀 많이 줘...." 국 종류와 국물을 즐겨 드시던 어머니. 꿈속에 몇 번이고 홀연히 오셔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한 말씀만 하셔도 반가울 텐데 왜 그냥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요? 5남매 걱정 뚝 끊으시고 평안히 계세요. 모두 열심히 부지런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문득 문득 생각날 때마다 대답 없는 어머니를 불러도 보았지만.....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어머니..... 오늘 저희 3식구 다녀갑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2008년 6월 14일】

돌아가신 후에도 사랑 받는 우리 할머니는 역시 최고의 할머니이신 것 같다.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는 까맣게 익은 버찌를 비롯해서 보리수, 앵두, 오디 등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가을이면 호도, 밤, 잣 등이 우리를 환영해준다. 할머니는 돌아가셔서도 우리 후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할머니 사랑해요.

한자급수 외부검정시험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6월13일 특색사업으로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자급수 취득을 위한 외부 검정 시험을 치렀다. 이날 시험에는 전교생 213명중 교사와 학생 198명이 참가해 시험을 치렀다. 이날 시험은 4급~8급까지 시험을 치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BEST 보육프로그램 ⑥ 경제교육을 위한 시장놀이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몇 년 전 서점에 들렀다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 구입해 감동 깊게 읽은 책이다. '물질의 풍요 속에 사는 아이들'

끊임없이 부모에게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아이들, 책을 더 이상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의 정서와 새로운 것에 쉽게 매료되어 가진 것에 애착이 없어지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과, 예전엔 한 권의 책을 받고도 너무 많이 기뻤고, 추석빔을 손가락으로 헤이며 추석을 기다렸던 유년시절을 돌아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생활주제에 맞춰 우리 동네에 관련해 시장놀이 프로그램을 원에서 진행한다. 본원에서도 아나바다와 경제교육에 초점을 맞춰 '관인알뜰시장'을 계획을 연다.

프로그램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먼저 가정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요, 내용, 부모님 협력사항 등을 안내하고, 2주전부터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 등을 기증 받는다.

원에서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상점을 어떻게 배치할지, 지갑, 돈, 가방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회의를 충분히 한다.

상점은 가정에서 기증하는 물품들을 분류하고, 원에서 보충해야 하는 물건들, 중점을 두어 운영 될 가게에 대한 배치를 한다.

구체적으로 상점은 옷 코너, 신발코너, 문구코너, 장난감 코너, 특별코너(효도코너), 서점, 제과코너, 분식점, 음식점으로 조직해 배치한다.

아이들은 직접 사용할 지갑, 가방을 스스로 꾸미고, 직접 돈을 주고 물건을 사보는 경험을 갖기 위해 2,000원(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2개)을 가정에서 가져와 만든 지갑에 넣는다. 요즘은 개별적으로 하는 계산보다 장을 다 본 후 카운터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식점을 제외한 물품은 계산대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산원(부모도우미)를 배치한다. 가정이나 인근 원의 협조로 작은 쇼핑카트를 대여하는 것도 시장놀이를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여, 자신만 아는 경향이 많으므로 특별코너를 마련하여 부모님 물건(원에서는 천냥하우스 등을 이용)도 같이 배치한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협력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도우미를 미리 신청을 받아 행사 당일 20분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정을 소개하고, 역할분담을 한 뒤 행사 진행 후에 다시 모여 설문과 참여소감 등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아이들은 준비된 환경에서 물건을 사보는 경험을 하면서 돈의 귀중함과 물건을 살 때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제한되어 있는 돈과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아이들은 구매충동을 조절하는 마음을 배운다.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은 어른이 키워주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이다. 노동의 가치와 직업 역시 경제교육에 있어 꼭 필요하며, 이런 측면은 직업에 대한 탐색과 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결된다.

바른 경제교육의 측면에서 시장놀이는 아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구조화 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김 경 선
관인어린이집 원장
kksun64@hanmail.net

《 함께 공부해요 》

위의지칙(威儀之則) ⑥

曲禮에 曰 共食不飽하며 共飯不澤手하며 毋摶飯하며
毋放飯하며 毋流하며 毋咤食하며 毋齧骨하며
毋反魚肉하며 毋投狗骨하며 毋固獲하며 毋揚飯하며
飯黍毋以箸하며 毋遝羹하며
(歠마실철. 齧 물설. 咤 꾸짓을타. 黍.기장서. 遝. 뒤섞일답. 羹.국갱. 醢 젓갈해.)

곡례가 말하기를 "남과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불리 먹지 않으며. 남과 함께 같은 그릇의 밥을 먹을 때에는 손을 적시지 않는다. 밥을 뭉치지 말며. 밥 숟가락을 크게 뜨지 말며 물 마시듯 들이마시지 말아야 한다. 밥을 뱉지 말며 뼈를 씹지 말며 먹던 고기를 다시 그릇에 넣지 말며. 뼈를 개에게 던지지 말며. 어느 것을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뜨거운 기운을 식혀서 빨리 먹으려 밥을 파헤치지 말며. 기장밥은 젓가락으로 먹지 말아야 한다. 젓은 고기는 이로 끊고. 마른고기는 이로 끊지 안으며. 군고기는 한입안에 넣어 먹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했다.

이 글에서는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할 일과 음식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먹는 방법, 예의 등을 논했다. 특히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 들고 음식을 탐하여 남과 경쟁을 벌이는 것 같은 행동은 교양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삼가야 한다.

양 주 승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윤종성의 국제비지니스 미국영어

수와 셈
15. 〈보 기 〉
(8) 자동차 사양
* 이 차는 2004 년형 한국산 신형차 렉스턴입니다.
디시서누마를 렉스턴 메이딘코리아 인투따우센휘
〈This is a new model jeep Rexton made in Korea in 2004.〉
* 간단한 사양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일브뤼후유 온잇스스페시휘케이션
〈I'll brief you on its specification.〉
- 길이 : 렝스 〈Length〉: 4,795mm 훠따우센 쎄분한드렛 나이리화입엠엠
- 높이 : 하잇 〈Height〉: 1,865mm 원따우센 에잇한드렛 씩스티화입엠엠
- 너비 : 와이스 〈Width〉: 1870mm 원따우센 에잇한드렛쎄븐디엠엠
- 연비 : 휴엘 에휘시엔시 〈Fuel efficiency〉 10.9km/liter 텐포인나인케이엠 퍼리를
- 연료종류 : 타이봅 휴엘 〈Type of fuel〉 Diesel(디젤)
- 총 중량 : 그로스웨잇 〈Gross weight〉:2,465kg 투따우센 휘한드렛 씩스티화입케이지
- 배기량 : 엔진디스플레이스멘 〈Engine displacement〉 :2,874cc 투따우센 에잇한드렛쎄븐디휘씨씨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colyoon@nate.com